

동화와 함께 읽는 세계기문

담터비를

맞고 무너진

로마제국

김춘택 지음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김창석

책임교정: 김홍화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被鸡毛雨淋垮的罗马帝国: 朝鲜文 / 金春泽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8. 7

ISBN 978-7-5449-0369-1

I. 被… II. 金… III. 童话-作品集-韩国-现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312.688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8) 第093019号

被鸡毛雨淋垮的罗马帝国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上海信老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960×640 1/16 印张: 14.75 字数: 16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369-1 (民文)

版次: 2008年7月第1版

2008年7月第1次印刷

印数: 500册

定价: 20.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책을 내면서

기이하다 함은 흔히 일반적인것과 달리 이상하고 유별남을 뜻한다. 나 자신이 익숙히 알고있는것이냐 나 자신이 자주 행하는것은 일반적인것이고 보편적인것으로 그렇다 할 의미를 지니지 않지만 나 자신이 잘 모르고 또 상상밖에 있는 것들과 나 자신이 한번도 행해보지 못했거나 행해볼수 없는 것들은 특별한것이고 리해할수 없는것으로 그 해답을 찾게 된다.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것에 답이 있는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류는 존재한 그날부터 자신이 알고있는것이냐 모르는것에 대해 답을 찾고저 노력해왔다. 이를테면 기이한 현상들에 대한 인류의 탐구는 곧 과학이란 산물을 낳았고 과학적연구를 통해 얻어진 답은 곧 인류문명을 창조해주었다. 탐색적인 연구로 인류가 풀어올수 있는 기이한 현상은 과학이고 탐색적인 연구로 지금까지 인류가 풀어올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은 종교나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인류의 발전은 산수풀이임에 의심할나위가 없다. 인류도가감승제와 같이 쉬운 산수풀이는 초등생들처럼 쉽게 풀어 자신들의 생존에 응용해왔지만 미지수를 사용한 대수식 같은

것은 중학생들처럼 풀지 못하고 내버린 상태다. 하지만 언젠가 풀수 있기를 기대하며 거듭 도전을 한다.

오늘 동화와 함께 읽는 세계기문이란 주제로 “닭털비를 맞고 무너진 로마제국”이라는 책을 어린이들에게 내놓으려고 한다. 그 동기는 내가 세계기문이라 일컫는 세상의 기이한 현상들의 정답을 모두 찾아서가 아니다. 그런 상황도 아니면 서 굳이 이 책을 내놓음은 기이한 현상들의 정답을 데이터로 내놓는것이 아니라 동화라는 이야기로 내놓으려 함이다. 환상적인 동화이야기를 지어서 기이한 현상에 양념을 찍어준은 어린이들이 기이한 현상에 호기심을 더 가지고 탐색적인 사유로 성장하길 기대함이다. 우리가 살고있는 지금 이 시대나 가까운 미래에서 생존해나가자면 기발한 사유공간을 가지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우리 어린이들이 기발한 사유공간을 키우자면 기이한 현상에 대한 점진적인 접근을 가져야 할것이다.

디지털시대의 오늘날 기이한 현상은 더 많아지고있다. 하루에도 수십종씩 사이트에 오르내리는 기이한 현상들과 만날 때 즐거움보다는 곤혹스러움이 더 앞서는데 대개 그 기이한 현상들이란 우리 인류가 생태를 파괴해서 만들어놓은것들이다. 예를 들면 동식물의 변이현상 바로 그 점이다.

이 책에서 주요하게 다룬 기이한 현상들은 동식물이나 지역에 한한것들이며 그외에 력사나 위인들이 남긴 사회들도 기이한 이야기로 올렸고 음식이나 종족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기이한 유래나 기이한 풍속들도 기문으로 올렸다. 해서 이 책은 보편적인것이 아니라 조금 특별하다는 범위에서 그 내용물들이 이루어졌음을 밝혀두고싶고 어디까지나 동화이야기 중심으로 상식적인 기문들을 연관시켰음도 밝혀두고싶다.

이 한권의 책이 어린이 독자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읽



2. 닭털비를 맞고 무너진 로마제국

혀지기를 바라마지않으면서 이 책을 집필하게 해주고 또 출간까지 해준 연변인민출판사 상해지사 김창석지사장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바쁜 와중에도 멋진 추천사까지 써주신 도라지잡지사 사장 전경엽선생님에게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표지그림을 그려주신 박건국화가님에게, 삽화를 그려준 김향화씨에게 감사를 드린다.

지은이로부터
2008년 6월 10일 청도에서



제1탄 기이한 동물

악어의 눈물

버섯농부 가위개미

생선탕에서 사와하는 물고기

고양이와 쥐의 교역

기름기대통령의 공시

돈 끼호테와 거부기

개가 담배 피우며 몽둥이잡질

어항에 키우는 발전소

나무이장화

수증리업이 된 무적의 전폭기들

새끼를 잡아먹는 아바물고기

천정도깨비와 숙계폭탄

강물에 뛰어드는 도마도

약을 먹고 남자와 여자로 되는 사대

챔피언이 된 물고기

인어공주의 전지가 된 별나라왕자

차례

머리말

1. 책을 내면서

제1탄 기이한 동물

1. 악어의 눈물
2. 버섯농부 가위개미
3. 생선탕에서 사와하는 물고기
5. 고양이와 쥐의 교역
7. 갈매기대통령의 공시
9. 돈 끼호테와 거부기
11. 개가 담배 피우면 몽둥이찜질
13. 어항에 키우는 발전소
15. 나무잎장화
17. 수중락엽이 된 무적의 전폭기들
19. 새끼를 잡아먹는 아빠물고기
21. 천정도깨비와 숙제폭탄
23. 강물에 뛰여든 도마도
24. 악을 먹고 남자와 녀자로 되는 시대
27. 챔피언이 된 물고기
29. 인어공주의 전지가 된 별나라왕자

제2탄 기이한 식물

- .35. 버섯공주를 사랑하는 매미
- .37. 황소도적과 아름드리나무
- .39. 알을 낳는 나무와 새끼를 낳는 나무
- .42. 도깨비가 만든 나무시계
- .45. 화산폭발을 알리는 꽃
- .47. 국경의 꽃으로 된 두 공주님
- .50. 악수를 가르치는 선생님
- .52. 나비와 꽃봉오리
- .54. 아리랑을 부르는 꽃
- .57. 수박폭탄과 서리군아이들
- .60. 새 주민을 찾는 사막왕국
- .64. 야광접시와 옹기쟁이

제3탄 기이한 곳

- .71. 시내물을 건어들인 샘
- .74. 피부색이 변하는 외나무다리
- .76. 바다가재에 집혀죽은 국왕
- .79. 농부와 불을 뿜는 호수
- .82. 호수를 끓이는 나무군
- .85. 제리와 빨간 잉어늘
- .88. 늑왕국 백성들의 직책
- .90. 농부의 목숨을 구해준 호수

제4탄 기이한 이야기

- .95. 나라를 멸망시킨 고양이
- .97. 닭털비를 맞고 무너진 로마제국
- .98. 유태인과 싸워 이길수 있는 방법



.2. 닭털비를 맞고 무너진 로마제국

- .100. 장님이 된 그리스시인들
- .101. 날 따라하면 죽어
- .102. 반대방향으로 가면 죽어
- .104. 예수와 유다는 한 사람
- .106. 알을 낳고싶었던 수탉의 최후
- .108. 황제고기로 만든 스투
- .109. 화장실 없는 궁전
- .110. 사랑을 받은 돼지
- .112. 바로의 5천년 량식 꿀
- .114. 암소 배속에 있는 삼푸
- .116. 꿈나라의 꿈을 파는 슈퍼
- .119. 도마도벼락을 맞은 거간군
- .121. 목공과 병정인형

제5탄 기이한 현상

- .127. 송아지랑 함께 살래
- .128. 길을 밝혀주는 반디불공주
- .131. 다리로 불을 지피는 마법소녀
- .133. 별나라왕자와 공주님
- .136. 하늘에서 잡는 황소
- .138. 박쥐의 울분
- .140. 차와 럽총이 잡은 사슴
- .142. 추운 바람이 된 공주님
- .144. 하늘나라로 가려던 두꺼비들
- .146. 발자국에 장미꽃이 피는 소녀
- .148. 한집식구가 된 참새와 쥐
- .150. 사계절이 있는 호텔방
- .152. 밀밭에 쓰인 숙제답안

.154. 일벌들의 반역

제6탄 기이한 사람들

.159. 하늘이와 바보할아버지

.161. 치술질로 마녀를 물리친 공주님

.164. 못된 아이 엉덩이에 꼬리 난다

.166. 효도로 손가락을 바친 할아버지

.168. 고개 넘어간 갈비찜

.170. 데려오지 말아야 하는 며느리

.172. 여자신부와 여자신랑

제7탄 기이한 음식

.177. 말의 여물을 먹는 마부

.179. 몽골병사의 머리냄새가 나는 샤브샤브

.181. 수탉꼬지술

.183. 저주받은 악마의 술

.184. 생쥐료리사와 공주님

.186. 행복할 땐 개똥도 맛있는 과자

.187. 돼지 잡는 샛전은 돼지꼬리

.189. 소나무의 령혼이 깃든 오리알

제8탄 기이한 일화

.193. 죽은 작가들의 책만 내는 출판사

.195. 장레비조차 없었던 렘브란트

.196. 발가벗고 다니는 네로황제

.197. 귀를 틀어막은 연주가

.199. 왜 푸른 피가 흐르지 않을까

.201. 옷소매의 각이한 용도

.4. 닭털비를 맞고 무너진 로마제국

- .203. 우정이 남긴 기념비
- .205. 머리에 단풍이 든 비발디
- .206. 금붕어에게서 음악을 배운 굴드
- .208. 담배대통도깨비와 선녀
- .211. 다음번엔 황소를
- .212. 약속을 어긴 국왕
- .214. 노루고기를 혼자 먹으려던 친구
- .216. 귀를 선물주다
- .217.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대화

제9탄 신비한 과학

- .221. 소몰이군아이의 흑판이 된 샘물
- .223. 화재경고: 소변 조심!
- .224. 미래 인류혈형의 동반자 달팽이알
- .225. 물주머니가 된 별찌
- .227. 수시로 엇바뀌는 겨울과 여름
- .228. 소인왕자와 개구리공주

추천사

- .231. 눈높이에서 동심의 지혜로

악어의 눈물

창작동화

“애, 저 악어를 봐. 참회의 눈물을 줄줄 흘리잖니?”

“사실 악어는 우리보다 더 인간적이야. 우린 송아지갈비 맛나게 먹으면서도 깔깔거리는데…”

두 오누이가 송아지갈비를 하나씩 뜯어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악어가 송아지를 뜯어먹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장면을 보고 하는 대화였습니다.

기이한 동물—악어는 왜 눈물 흘릴까?

악어는 아주 흉악합니다. 일단 악어가 사냥물을 입안에 넣기만 하면 그 잔인성은 더더욱 소름이 끼칩니다. 큰 송아지 한마리도 악어의 입에서는 순식간에 하얀 백골로 남을뿐입니다. 하지만 것처럼 잔인한 악어한테도 눈물이 있습니다. 잔인하게 먹이를 물어뜯을 때마다 “참회의 눈물”이 락수처럼 줄줄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 절대 아닙니다. 워낙 잔인한 악어는 식욕마저 사납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둥이보다 엄청 큰 먹이를 씹느라고 악을 쓰다보니 주둥이의 근육이 주둥이와 가까이에 붙어있는 눈의 눈물샘을 자극하여 눈물이 샘솟는것이지 우의 이야기와 같이 그 어떤 감정이 있을수 없습니다.

버섯농부 가위개미

창작동화

마을밖 오솔길로는 버섯따러 가는 애들로 붐비었습니다. 저마다 작은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말입니다. 마당에서 뛰놀던 까불이도 뒤통고싶지 않아 작은 광주리 하나를 찾아들고 그애들을 따라가며 물었습니다.

“애들아, 버섯따러 어디로 가는데?”

“가위개미네 집으로 간다. 버섯농사가 대풍이라니...”

“뭐, 가위개미네 집으로?”

까불이는 뭐가 뭔지 잘 알수 없었지만 호기심이 덩덩해서 뒤질세라 따라갔습니다.

기이한 동물—가위개미

남아메리카에는 가위개미란 종류의 개미들이 있습니다. 그 개미들은 가위같이 생긴 이발이 있는데 큰 가위개미들은 밖에 나가 나무잎을 잘라 굴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작은 개미들이 그 나무잎을 더 잘게 잘라 개미굴속에 있는 군사실로 가져갑니다. 그 군사실에는 더욱 작은 개미들이 그걸 더 보드랍게 씹고 또 침으로 반죽하여 군사에게 먹입니다. 개미들이 먹여주는 단백질을 섭취한 군사들은 신속히 자라는데 가위개미들은 그 군사들을 뜯어먹으며 생존합니다.

생선탕에서 사와하는 물고기

창작동화

혹독한 추위에 시달려 거의 동태가 된채 숨이 간들거리던 물고기 한마리가 그결을 지나가는 북극곰에게 애원했습니다.

“북극곰님, 절 구해주세요.”

“싫어, 난 배가 고파서 널 구해줄 힘이 없어.”

인정이 사납기로 소문난 북극곰은 무정하게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물고기가 피를 생각해냈습니다.

“북극곰님, 배가 고프지 않아요?”

“내 배가 고포는데 네가 도울 일이 있어? 넌 생선비린내가 나서 생식은 할수 없고...”

북극곰은 빙판에서 간들거리는 물고기를 한번 주시하고는 화를 냈습니다. 북극곰은 비린내가 나는 물고기로 주린 배를 채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왜 도울 일이 없어요.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계곡에 온천이 팔팔 끓고있어요. 거기다가 절 넣어서 익혀먹으면 비린내가 나지 않고 맛있을건데요. 전 아무래도 얼어죽을 팔자인데 차라리 생선탕에서 사와를 하다가 죽을래요.”

물고기의 말을 들은 북극곰은 마음이 동해서 물고기를 주어들고 온천으로 갔습니다.

온천에 이른 북극곰은 물고기를 뜨거운 온천물에 집어넣고 물고기가 익기를 기다렸습니다. 헌데 웬걸 뜨거운 온천속에 들어간 물고기는 자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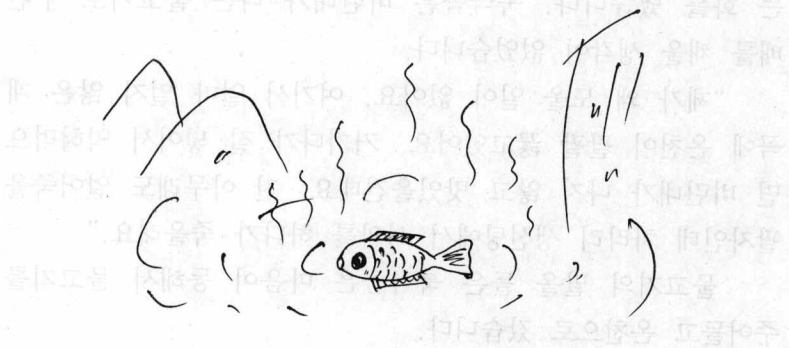
“아마 온천이 너무 뜨거워서 녹아버린 모양이야.”

영문을 모르는 북극곰은 한마디 중얼거리며 제 갈길을 갔습니다.

기이한 동물—끓는 물에서 사는 물고기

캐나다의 탐험가들이 추운 북극에서 탐험을 하다가 동태가 된 물고기 한마리를 주었습니다. 오래동안 생선을 먹어보지 못한 탐험가들은 기뻐하며 그 즉시 숙영을 하고 생선탕을 끓였어요. 헌데 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마의 물이 펄펄 끓기 시작하자 동태가 되었던 물고기가 되살아나서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증명된 일이지만 탐험가들이 주은 그 물고기는 본래 화산일대의 뜨거운 온천에서 살던 물고기였는데 그후 기후변화로 그 지역이 빙판이 되자 꽂꽂 얼어 지각을 잃었다가 뜨거운 생선탕가마에서 소생한것입니다.



아빠, 우리도 낚시질 하는 쥐를 키우자. 맨날 생선탕을 먹게 말이야?

고양이와 쥐의 교역

창작동화

뒤주간을 지키던 고양이가 도적쥐 한마리를 잡았습니다. 고양이가 도적쥐의 숨통을 끊으려 할 때 도적쥐가 애원을 했습니다.

“고양이님, 절 한번만 용서해주세요. 다신 안 그럴게요.”

“용서보다는 내가 배고프기도 하단다. 주인은 너희들 도적쥐를 잡아먹고 살라고 먹이를 안 주거든.”

주인에게 충실하고 배도 고픈 고양이가 도적쥐를 놓아줄 리 만무했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준다면 제가 매일 생선을 잡아드릴게요. 매일 먹는 쥐고기보다 생선이 더 좋지 않을까요?”

도적쥐는 고양이에게 흥정을 들이냈습니다.

“생선, 생선이라! 헌데 물속에 있는 생선을 네놈이 어떻게 잡는다고 그러느냐?”

생선이란 말에 고양이는 마음이 동했지만 도적쥐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전 꼬리로 낚시질해서 잡아요. 꼬리로 한번 낚시질하여 잡는 고기가 그물에 걸린것보다 더 많으니 고양이님은 하루에는 다 못 드실겁니다.”